

항공운송 동향분석

2011년 6월 우리나라 항공운송동향분석 (상반기 총괄)

한국항공진흥협회 기술정보실



'11년 6월 우리나라 항공운송동향분석 (상반기 총괄)

- ❖ 일본 대지진 여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연휴기간¹⁾으로 인한 여행수요 증가로 상반기 국제여객 및 국내여객이 각각 4.2%, 0.7% 증가, 항공화물은 국제유가 · IT관련 수출입물량 감소 영향 등으로 -2.4% 감소

상반기 항공업계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 사고

- ① 2011.03.11: 일본 동북부지역 규모 9.0의 강진과 쓰나미 강타
4.13 센다이공항 운항 재개
- ② 2011.05.21: 아이슬란드 그림스보튼 화산폭발
23~25일 화산재로 인해 운항이 취소된 경우는 약 1%에 불과.
23일 케플라비크 공항이 운항 재개
- ③ 2011.06.04: 칠레 푸에우에 화산폭발
화산재 구름이 아르헨티나를 거쳐 브라질 남부 지역에까지 도달
하면서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브라질의 항공 운항에 차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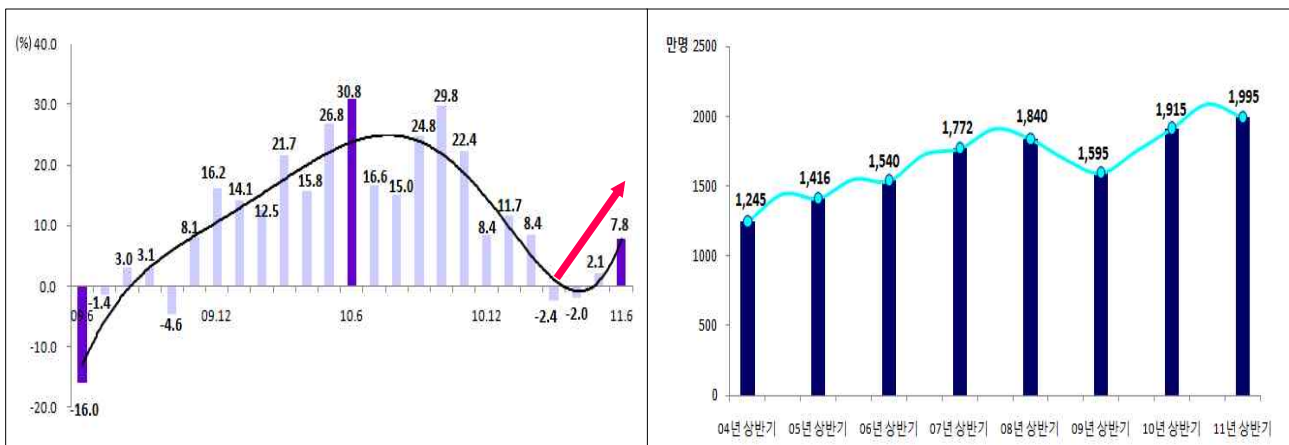
쓰나미 덮친 센다이공항(좌)과 칠레 푸에우에 화산 폭발로 생긴 화산재 구름(우)

〈출처: 연합뉴스〉

1) 국내(설 연휴, 어린이날 · 석가탄신일 등), 일본(골든위크), 중국(춘절, 노동절, 단오연휴)

국제여객

2011년 상반기 국제여객은 일본 대지진 여파로 3월과 4월 감소세를 보이다가 5월부터 회복되기 시작하여 6월 전년대비 7.8% 성장하며 상반기 전년대비 4.2% 증가한 19,954,877명을 달성, 역대 상반기 중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다.



〈그림 1〉 국제여객 전년 대비 증감률 및 실적추이 그래프

〈표 1〉은 공항별 국제선 운항 및 여객실적을 정리한 표로, 공항 전체적으로 6월 운항과 여객이 전년대비 각각 8.8%, 7.8% 증가하였고, 상반기에는 운항이 전년대비 10.1% 증가, 여객이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김포공항은 여객 실적이 상반기 기준으로 전년대비 각각 3.6%, 4.2% 증가하면서 한 자릿수의 성장세를 보였으며, 제주공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공항은 운항이 증가하면서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주공항의 경우 6월에는 여객이 전년대비 -2.5% 감소하였으나 상반기 전체로는 전년대비 114.1% 증가(약 2.1배)하며 큰 폭으로 성장하였다. 지역별로 전년대비 비교하여 살펴보면 노선의 10.3%를 점유하는 일본이 전년대비 623.6% 증가(약 7.2배), 노선의 47.9%를 점유하는 동남아가 전년대비 110.5% 증가(약 2.1배), 노선의 약 41.7%

를 점유하는 중국이 전년대비 85.1%(약 1.9배)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공항은 일본 지진이후 상반기 일본노선의 여객이 전년대비 -8% 감소하였으나 대체수요로 동남아노선의 여객이 전년대비 39.8% 증가하며 10% 이상의 성장세를 이어갔다. 반면 제주공항은 운항 중인 모든 지역에서 여행수요가 감소하면서 상반기 여객 실적이 전년대비 -1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선의 약 55%를 점유한 일본은 전년대비 -19.7% 감소하였으며 37%를 점유하는 중국 또한 전년대비 -19.4% 감소하였다.

〈표 1〉 공항별 국제여객실적

(단위 : 회, 명)

		운 항			여 객		
		2010년	2011년	전년대비	2010년	2011년	전년대비
인 천	6월	17,209	18,446	7.2%	2,615,478	2,794,233	6.8%
	상반기	100,741	109,257	8.5%	15,746,826	16,311,578	3.6%
김 해	6월	1,857	2,260	21.7%	238,382	282,988	18.7%
	상반기	10,624	12,782	20.3%	1,436,458	1,616,020	12.5%
김 포	6월	1,201	1,394	16.1%	247,398	275,151	11.2%
	상반기	7,249	8,518	17.5%	1,512,420	1,576,567	4.2%
제 주	6월	464	423	-8.8%	62,666	54,181	-13.5%
	상반기	2,390	2,232	-6.6%	313,730	249,394	-20.5%
대 구	6월	82	129	57.3%	9,840	16,196	64.6%
	상반기	492	629	27.8%	58,507	81,510	39.3%
청 주	6월	48	56	16.7%	6,312	6,153	-2.5%
	상반기	263	676	157.0%	37,177	79,610	114.1%
무 안	6월	36	44	22.2%	4,253	5,171	21.6%
	상반기	305	371	21.6%	37,932	40,198	6.0%

〈표 2〉 지역별 여객실적

(단위 : 명)

구분	일 본	중 국	동남아	미 주	유 럽	대양주	기타
'10년 6월	867,866	767,785	834,612	330,384	237,311	95,811	51,329
'11년 6월	773,151	836,830	1,063,188	341,875	263,406	104,508	51,115
전년대비	-10.9%	9.0%	27.4%	3.5%	11.0%	9.1%	-0.4%
'10년 상반기	5,440,930	4,301,239	5,544,683	1,774,612	1,212,704	595,446	275,987
'11년 상반기	4,748,589	4,537,264	6,528,072	1,877,330	1,318,990	648,815	295,817
전년대비	-12.7%	5.5%	17.7%	5.8%	8.8%	9.0%	7.2%

〈표 2〉는 지역별 국제여객실적을 나타내어 준 것으로, 일본을 제외한 전 지역이 증가세를 지속, 일본 수요 감소분을 동남아가 충당하면서 증가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난 3월 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 일본노선의 수요 변화를 살펴보면, -17.1%(3월) → -30.3%(4월) → -22.7(5월) → -10.9(6월)로 4월 감소폭이 커졌다가 5월 골든위크를 기점으로 회복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 비중을 살펴보았을 때에도 전체 중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4월에 20.0%로 전년대비 -8.2%p 감소하였으나 6월에는 22.5%로 전년대비 -4.7%p 감소함으로써 수요가 점차 회복되면서 전체적으로 (+)성장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는 일본 대체여행수요 증가로 6월 전년대비 27.4% 증가, 상반기 전년대비 17.7% 증가하였고, 유럽과 미주지역은 상반기 연휴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6% 이상의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상반기 국적사의 비율은 전 지역 평균 65.7%로 전년대비 -1.4%p 감소하였으나, 우리나라 저비용항공사는 전년대비 2배 증가하여 3.6%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해-오사카노선의 경우 상반기 저비용 분담률이 29.8%로, 전년대비 약 19%p 상승하면서 국내 저비용항공사의 빠른 성장세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노선으로 꼽혔다.

* LCC 분담률 : 0.0%('08.상) → 0.2%('09.상) → 1.8%('10.상) → 3.6%('11.상)

6월 인천공항의 환승여객²⁾은 연휴기간 직항여객 수요 증가로 전월대비 -3.9% 감소, 전년대비 5.4% 증가한 415,674명 달성, 환승률은 전월대비 -1.0%p 감소, 전년대비 -0.2%p 감소한 14.8%를 기록하였다. 상반기 기준으로 환승여객은 전년대비 4.0% 증가한 2,736,037명, 환승률은 전년대비 0.1%p 증가한 16.7%를 기록하였다.

다가오는 7월은 본격적인 여름철 성수기의 시작으로 동남아지역의 부정기편 증대, 방학기간을 이용한 장거리 여행수요 증가 등으로 6월보다 더욱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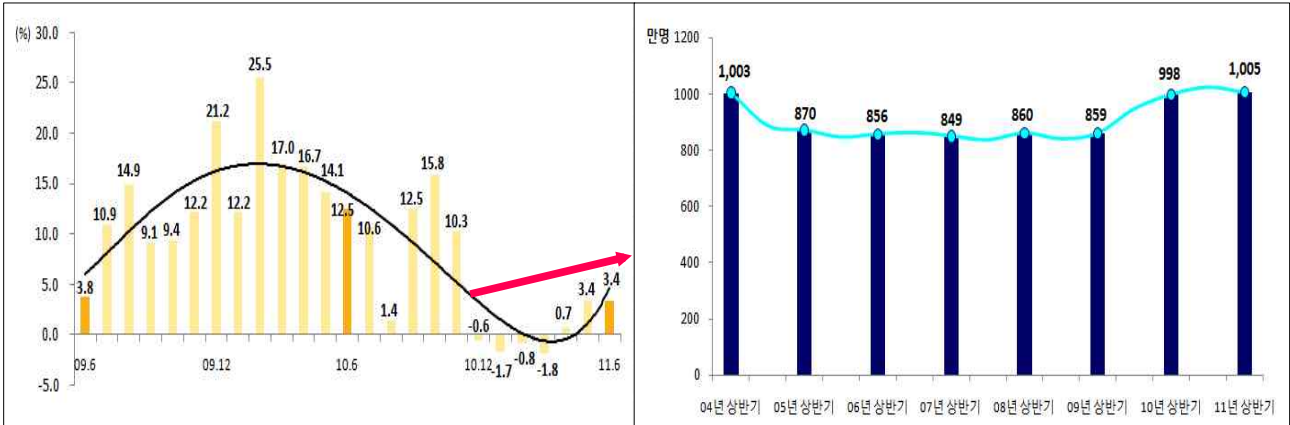
국내여객

국내여객은 지난 5월에 이어 6월에도 현충일 등을 이용한 연휴 여행수요, 소셜 커머스 등을 통한 다양한 운임 할인, 저비용항공사의 운항 증대에 힘입어 전년대비 3.4% 증가한 1,723,600명을 달성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지난해 KTX 2단계가 개통된 후 지방공항의 운항 증대의 둔화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상반기 국내 여객은 전년대비 0.7%만 증가한 10,046,844명을 달성하였다.

국내여객실적을 제주노선과 내륙노선으로 나누어살펴보면 제주노선의 경우 6월 전년대비 11.9% 증가하며 상반기 전년대비 6.3% 증가한 반면 내륙노선은 6월 전년대비 -20.0% 감소, 상반기 전년대비 -1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탑승률은 제주노선과 내륙노선 모두 전년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며, 특히 내륙노선에서의 감소폭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2) 환승여객 추이 : 247만명('09.상) → 263만명('10.상) → 274만명('11.상)

환승률 추이 : 18.5%('09.상) → 16.6%('10.상) → 16.7%('11.상)



〈그림 2〉 국내선 여객 전년대비 증감률 및 실적추이 그래프

〈표 3〉 제주노선 vs 내륙노선 비교

구 분	제주노선		내륙노선	
	여객	탑승률	여객	탑승률
'10년 6월	1,221,050	82.0%	445,966	66.0%
'11년 6월	1,366,862	81.2%	356,738	58.6%
전년대비	11.9%	-0.8%p	-20.0%	-7.4%p
'10년 상반기	7,336,892	80.8%	2,638,249	63.9%
'11년 상반기	7,796,236	78.3%	2,250,608	59.1%
전년대비	6.3%	-2.4%p	-14.7%	-4.8%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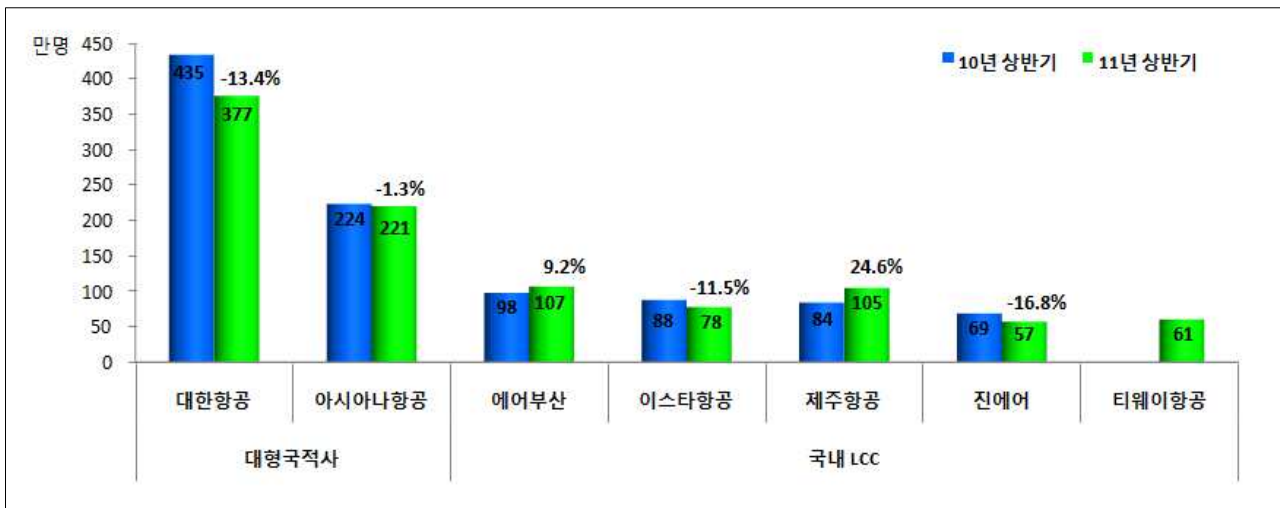
〈표 4〉를 통해 공항별 운항 및 여객실적을 보면 제주공항과 김포·김해공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방공항에서 감소세를 보였으며, 특히 KTX 2단계 개통의 영향으로 상반기 울산공항은 전년대비 -42.9%감소, 포항공항은 전년대비 -25.6% 감소하면서 큰 폭의 감소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공항의 경우 저비용항공사의 운항증대 및 운임할인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며 6월 전년대비 11.9% 증가, 상반기 전년대비 6.3% 증가함으로써 전국공항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김포-제주노선의 경우 저비용항

공사의 분담률이 전년대비 8.4%p 증가하며 52.8%를 기록, 김해-제주노선은 4.8%p 증가한 60.2%를 기록하였다. 향후 몇 달간 여름방학 및 여름철 휴가 등의 영향으로 내국인의 제주 관광수요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6월 저비용항공사의 국내여객실적은 702,654명, 분담률은 전년대비 6.3%p 상승한 40.8%를 기록하였으며, 상반기 저비용항공사의 국내여객실적은 4,072,543명으로 40.5%의 분담률을 기록하였다.

* LCC 분담률 : 6.8%('08.상) → 23.3%('09.상) → 34.0%('10.상) → 40.5%('11.상)



〈그림 3〉 국내선 항공사별 실적 비교 그래프

〈표 4〉 공항별 국내선 운항 및 여객실적

구 분		운 항			여 객		
		2010년	2011년	전년대비	2010년	2011년	전년대비
제 주	6월	3,923	4,371	11.4%	610,525	683,431	11.9%
	상반기	24,219	25,907	7.0%	3,668,446	3,898,118	6.3%
김 포	6월	4,210	4,377	4.0%	587,306	598,228	1.9%
	상반기	25,645	26,257	2.4%	3,476,658	3,465,677	-0.3%
김 해	6월	1,583	1,562	-1.3%	206,135	209,908	1.8%
	상반기	9,888	9,524	-3.7%	1,236,939	1,245,508	0.7%
광 주	6월	416	436	4.8%	54,554	53,243	-2.4%
	상반기	2,593	2,652	2.3%	330,307	326,212	-1.2%
청 주	6월	317	312	-1.6%	46,687	46,598	-0.2%
	상반기	2,161	1,871	-13.4%	289,295	290,730	0.5%
대 구	6월	295	299	1.4%	42,287	40,783	-3.6%
	상반기	1,786	1,755	-1.7%	248,047	247,527	-0.2%
여 수	6월	240	232	-3.3%	26,327	24,996	-5.1%
	상반기	1,380	1,442	4.5%	160,373	160,378	0.0%
울 산	6월	353	225	-36.3%	43,358	22,875	-47.2%
	상반기	2,192	1,615	-26.3%	260,321	148,769	-42.9%
인 천	6월	174	193	10.9%	19,332	19,086	-1.3%
	상반기	1,122	1,187	5.8%	119,923	109,192	-8.9%
포 향	6월	150	143	-4.7%	14,042	9,678	-31.1%
	상반기	889	845	-4.9%	80,919	60,240	-25.6%
군 산	6월	57	57	0.0%	6,389	6,502	1.8%
	상반기	337	348	3.3%	41,901	41,814	-0.2%
사 천	6월	90	73	-18.9%	6,832	5,107	-25.2%
	상반기	554	456	-17.7%	40,697	33,583	-17.5%
원 주	6월	29	28	-3.4%	2,689	2,757	2.5%
	상반기	170	172	1.2%	16,399	17,038	3.9%
무 안	6월	26	8	-69.2%	553	408	-26.2%
	상반기	165	49	-70.3%	4,916	2,058	-5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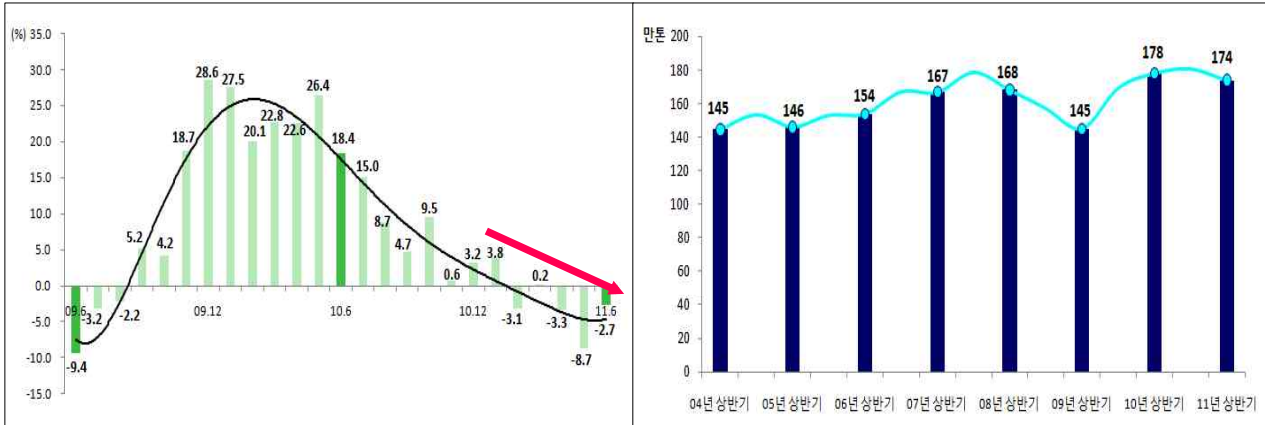
항공화물

'11년 상반기 항공화물은 '10년 상반기 이례적인 보인 급반등세로 인한 기저효과, 단가하락으로 인한 반도체·액정디바이스 등 IT관련 항공수출입 물량의 지속 감소, 유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2.4% 감소한 1,738,849톤을 달성하였다. 6월에는 지난 2월부터 보인 감소세를 유지하며 5개월 연속 (-)성장하였으나, 전년대비 -2.7% 감소한 286,105톤을 달성하며 감소폭을 줄여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화물실적 추이를 국제화물과 국내화물로 나누어 살펴보면 국제화물은 '10년 LCD 패널 유입량 급증으로 상승세를 보이던 IT관련 제품 수출입 물량이 유가상승, 미국·유럽 반도체 수요 위축, 패널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11년 상반기 전년대비 -2.6% 감소한 1,603,966톤을 달성하였고, 국내화물은 전년대비 0.9% 증가한 134,883톤을 달성하였다.

국제화물 운송량의 약 96%를 점유하는 인천공항은 6월 전년대비 -4.2% 감소, 상반기 전년대비 -3.2% 감소하면서 전체 항공화물실적의 감소세를 이끌었고, 국내 화물의 경우³⁾ 제주공항이 6월 전년대비 16.8% 증가, 상반기 전년대비 -1.5% 감소, 김포공항이 6월 전년대비 6.6% 증가, 상반기 전년대비 2.1% 증가, 김해공항이 6월 전년대비 3.5% 증가, 상반기 전년대비 9.0% 증가하며 증가세를 이끌어 간 것으로 나타났다.

3) 제주공항: 2011년 6월 기준 41.9% 점유
 김포공항: 2011년 6월 기준 30.0% 점유
 김해공항: 2011년 6월 기준 14.2% 점유



〈그림 4〉 항공화물 전년대비 증감률 및 실적추이 그래프

〈표 5〉 지역별 화물 실적

(단위 : 톤)

구분	일본	중국	동남아	미주	유럽	대양주	기타
'10년 6월	38,932	52,186	67,974	63,011	46,263	3,828	3,375
'11년 6월	35,528	50,123	68,500	59,351	44,588	4,460	3,408
전년대비	-8.7%	-4.0%	0.8%	-5.8%	-3.6%	16.5%	1.0%
'10년 상반기	233,089	315,470	421,305	362,210	272,190	24,446	18,558
'11년 상반기	216,209	299,703	425,921	344,386	268,812	26,252	22,685
전년대비	-7.2%	-5.0%	1.1%	-4.9%	-1.2%	7.4%	22.2%

〈표 5〉는 지역별 국제화물 실적을 나타내어준 표로, 동남아와 대양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월 지역별 화물실적은 상반기 화물실적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고, 특히 일본은 지진으로 인한 공급망 붕괴의 영향으로 6월과 상반기 모두 -7% 이상 감소하며 지역 중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중국과 미주, 유럽지역도 긴축정책, 경기둔화, 재정위기 등의 영향으로 -3~5%의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항공화물의 감소추세는 주요품목인 IT제품의 수출 부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지식경제부 자료에 의하면 상반기 IT 수출은 전년대비 6.3% 증가, 수입은

전년대비 15.0%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성장하였으나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IT제품의 소비패턴이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소형으로 전환되면서 중량 기준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하반기에도 항공화물의 추세는 소폭 상승하며 전년과 같은 호조세를 보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생산복구, 자동차부품, 국내 스마트폰의 신제품 출시로 인한 수출 증가 등이 성장세를 이끌며 소폭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전년대비 IT 수출 증가율 : ('10.상) 38.4% → ('11.상) 6.3%

* 전년대비 IT 수입 증가율 : ('10.상) 25.6% → ('11.상) 15.0%

인천공항의 환적화물은 6월 97,197톤, 상반기 571,682톤으로 전년대비 각각 -0.1%, -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크게 감소하였던 환적화물량이 6월에는 전년수준을 회복하면서 환적률 또한 전년대비 2.8%p 상승한 46.0%를 기록하였다.

5월 공항 출입국동향

일본의 지진발생 및 방사능 유출 우려가 아직은 출입국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2011년 5월 전체 외래국 입국은 전년대비 1.9% 증가, 내국인 출국은 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공항을 이용한 외래객 입국은 전년대비 2.6% 증가한 63만 명, 내국인 출국은 1.1% 증가한 94만 명으로 내국인의 비율은 60% 수준이었다.⁴⁾

* 전체 출입국자 : 176만 명, 공항 이용 출입국: 157만 명

* 공항이용 외래객 입국('10.5월 61만 명 → '11.5월 63만 명)

* 공항이용 내국인 출국('10.5월 93만 명 → '11.5월 94만 명)

4) 출입국통계는 항공통계와 집계기관이 다르고 승무원, 유아, 군공항, 환승 등에서 집계기준 차이 발생

전체 외래객 입국 중 공항이용 외래객입국은 84.6%, 전체 내국인출국 중 공항이용 내국인 출국은 92.8%에 해당한다. 외래객 입국은 인천, 김해, 김포 순으로, 내국인 출국은 인천, 김포, 김해 순으로 나타났다.

공항별로 살펴보면 외래객입국의 경우 제주공항이 전년대비 42.4% 감소하면서 큰 폭의 (-) 감소세를 나타냈으며, 김해·청주공항이 전년대비 높은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출국의 경우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은 전년동월과 비교하여 실적이 조금 증가하였으나 김포공항은 일본 여행수요 감소로 인해 또다시 -20% 이상의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출입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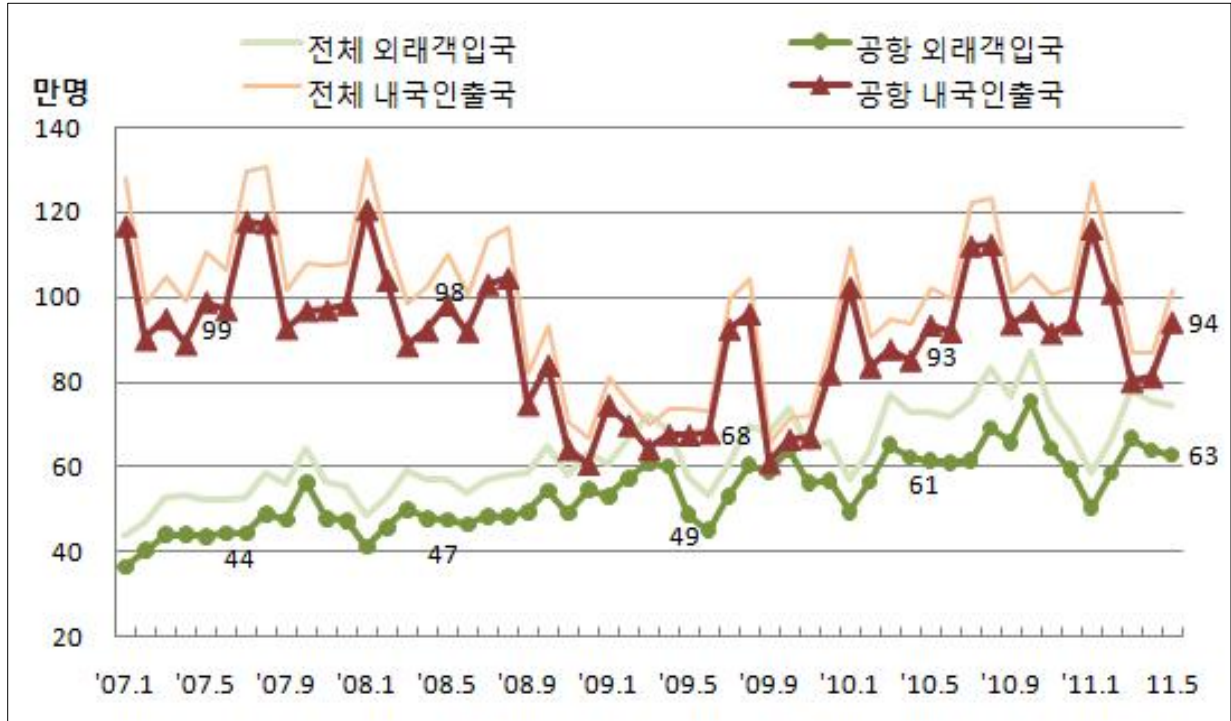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구 분	공항					비율	항구	비율	합계	
	인천	김포	김해	제주	기타					
외래객입국	466	45	85	29	3	629	84.6	114	15.4	743
내국인출국	781	98	44	5	14	942	92.8	73	7.2	1,014
계	1,247	142	130	35	17	1,571	89.4	187	10.6	1,758

〈표 7〉 외래객 입국, 내국인 출국현황

(단위 : 명, %)

구 분	외래객 입국				내국인 출국				내국인 비율 (%)
	'10. 5월 입국	'11. 5월 입국	증감 (%)	점유 (%)	'10. 5월 출국	'11. 5월 출국	증감 (%)	점유 (%)	
공 항	612,890	628,971	2.6	84.6	931,647	941,808	1.1	92.8	60.0
· 인천	447,706	465,981	4.1	62.7	762,336	780,683	2.4	77.0	62.6
· 김포	70,229	85,377	21.6	11.5	57,486	44,286	-23.0	4.4	34.2
· 김해	41,271	44,730	8.4	6.0	93,744	97,533	4.0	9.6	68.6
· 제주	51,088	29,442	-42.4	4.0	3,120	5,374	72.2	0.5	15.4
· 기타	2,596	3,441	32.6	0.5	14,961	13,932	-6.9	1.4	80.2
항구 등	116,560	114,493	-1.8	15.4	92,168	72,601	-21.2	7.2	38.8
합 계	729,450	743,464	1.9	100	1,023,815	1,014,409	-0.9	100	5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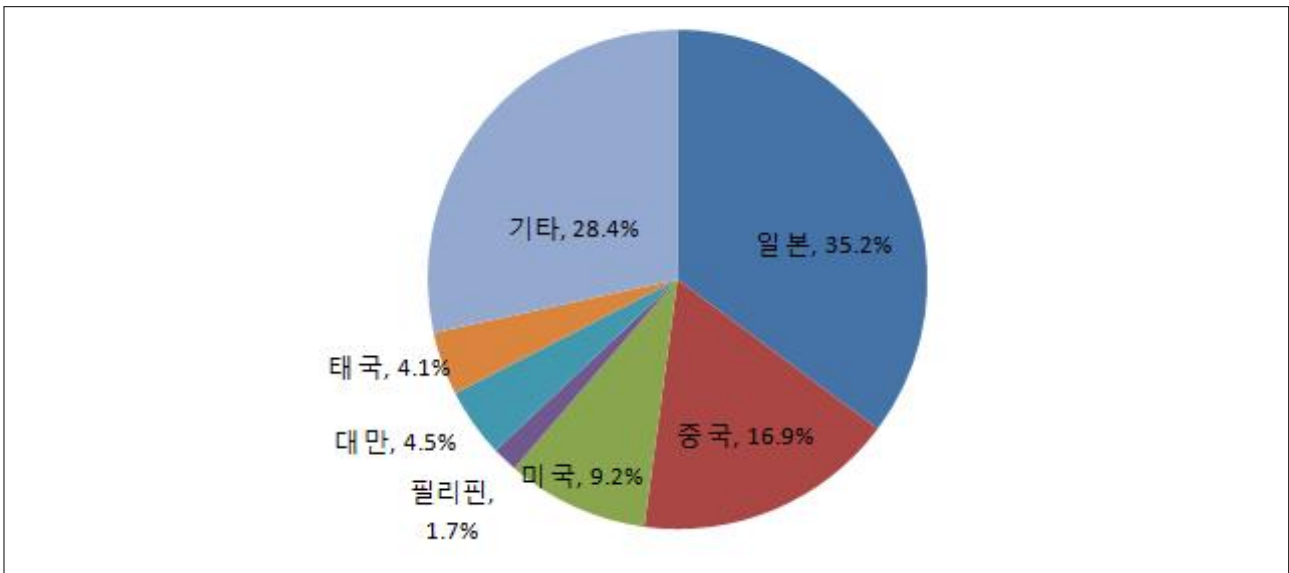


〈그림 5〉 외래국 입국, 내국인 출국 추이 그래프

〈표 8〉 국적별 외래객 입국현황

(단위 : 명)

구 분	전체 입국					공항 전체	성장률 (%)	국적별 점유(%)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일 본	234,626	112,726	75,251	21,821	11,501	221,310	-1.6	35.2
중 국	152,347	85,692	2,257	5,162	11,325	106,609	-3.8	16.9
미 국	61,077	53,506	1,397	1,934	367	58,068	3.6	9.2
필리핀	29,047	8,179	51	1,341	808	10,384	7.8	1.7
대 만	28,601	24,677	160	1,636	1,667	28,154	-14.2	4.5
태 국	26,093	24,398	46	981	35	25,710	26.5	4.1
전 체	743,464	465,981	85,377	44,730	29,442	628,971	2.6	100.0



〈그림 6〉 국적별 공항이용 외래객 비율 그래프

마지막으로 5월 국적별 외래객 입국현황을 살펴보면 일본인과 중국인의 입국이 다소 감소하였고, 미국과 필리핀에서의 입국이 다소 증가하였다. 2011년 5월 외래객 입국 중 각 국적의 비율은 일본이 35.2%, 중국이 16.9%, 미국이 9.2%에 해당한다.

❖ **(통계 유의사항)** 2011년 3월 항공운송동향분석부터 국제여객 및 항공화물의 노선별 실적이 전체 공항 실적을 합산한 수치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전 분석 자료에서는 인천공항의 노선별 실적 자료만 비교분석하였으므로 과거 자료와 비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선별 지역 구분은 아래 자료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지 역	포함 국가	비 고
일 본	일 본	
미 주	미국, 브라질, 아이티, 칠레, 캐나다, 페루	괌, 호놀룰루, 사이판 제외
동남아	네팔, 대만, 말레이시아, 몰디브공화국, 몽고, 베트남, 스리랑카, 싱가포르, 아제르바이잔,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필리핀	홍콩, 마카오, 사이판 포함
중 국	중국	홍콩, 마카오 제외
유 럽	(유럽)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몰타공화국,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터키,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CIS) 그루지야,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대양주	뉴질랜드, 뉴칼레도니아, 피지, 호주	괌, 호놀룰루 포함
기 타	(중동)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터키, 파키스탄 (아프리카) 콩고 (기타) 국제선 국내공항 경유 노선	